

■ 주요 뉴스: 이란, 미 군함 및 UAE 항구에 미사일 공격. 미군은 이란 소형정 6척 격파

- 카타르와 일본 재무상, 3영업일 간의 시장 개입은 단일 개입이라는 IMF 규정 언급
- EU, 미국의 EU산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강행 시 모든 보복 조치 검토
- 연준 주요 인사, 현재 연준 통화정책은 경제 불확실성 대처에 적절한 수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 등으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갈등 격화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1.0%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3% 하락, 엔화 가치는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국제유가 급등(Brent +5.8%) 등으로 7bp 상승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등으로 5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84.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85.4원. 0.20% 상승). 한국 CDS 보합

		5/4일	5/1일	전일대비			5/4일	5/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7,200.8	7,230.1	-0.41%	국채 금리 10y	미국	4.44%	4.37%	+7bp
	유럽	605.51	611.55	-0.99%		독일	3.09%	3.04%	+5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휴장	4.96%	-
	일본	휴장	59,513	-	CDS 5y	한국	28bp	29bp	-0bp
	한국	6,937.0	6,598.9	+5.12%		중국	43bp	44bp	-1bp
환율	달러지수	98.37	98.16	+0.22%	위험 지표	EMBI+	257	258	-1bp
	유로화	1.1691	1.1721	-0.26%		VIX	18.29	16.99	+7.65%
	엔화	157.24	157.01	-0.15%		WTI유	106.42	101.94	+4.39%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579.5	593.2	-2.31%
	원화	1,462.8	1,477.5	+1.40%		금	4,521.9	4,614.2	-2.0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이란, 미 군함 및 UAE 항구에 미사일 공격. 미군은 이란 소형정 6척 격파

- 알리 압둘라히 이란군 통합지휘부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이란에 달려 있으며,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은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표명. 미국을 포함해 이란과 조율 없이 해협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
- 이후 이란 국영 TV는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려던 미 해군 군함들을 저지했다고 보도. Fars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의 경고를 무시하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오만만 Jask섬 인근에서 해당 군함을 명중했다고 보도
-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이란의 소형정 6척을 격파했다고 발표. 미 해군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방식이 아닌, 함정, 헬기 등 광범위한 패키지를 운용해 안전경로를 확보 중이며, 미국 국적 선박 2척을 통과시켰다고 부연
- 이란 측은 미국 상선 두 척의 해협 통과와 선박 6척 피격 발언에 대해 부인.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UAE 해안선까지 자신들의 통제권 아래 있다고 주장
- 한편 UAE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4발 중 3발을 격추했으나,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Fujarah 항구에 위치한 석유산업단지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 해당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동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현재 연준 통화정책은 경제 불확실성 대처에 적절한 수준

- 뉴욕 연의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연준의 정책이 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 또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연준의 이중 책무는 양방으로 위험이 증가했다고 발언
- 금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2.25%, 실업률은 4.25~4.5%로 양호한 흐름을 예상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관세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IMF 게오르기예바 총재, '27년까지 중동 전쟁 지속 시 세계경제 타격 심화 예상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27년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유가가 \$125에 달할 경우, 세계경제가 더욱 나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IMF의 기존 시나리오(완만한 세계경제 둔화 및 물가 상승)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부정적 시나리오가 발효된 상태

■ 카타야마 일본 재무상, 3영업일 간의 시장 개입은 단일 개입이라는 IMF 규정 언급

-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지난주 일본 외환당국의 1년 9개월 만의 환시 개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현 단계에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투기적인 움직임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
- 또한 IMF는 3영업일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단일 개입으로 간주한다고 강조. 4.30일 외환당국이 \$345억(추정) 규모 개입을 단행 후 3영업일 쯤인 5.4일에도 달러/엔 환율이 아시아 장중 0.8% 급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개입 가능성에 주목

■ EU, 미국의 EU산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강행 시 모든 보복 조치 검토

- 5일 예정된 미국-EU 통상대표 협상을 앞두고 EU 재무장관들은 미국이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모든 보복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표명
- 라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상황이 악화되기를 원치 않으며 미국과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를 원한다고 발언하면서도, 상황 악화 시 대비도 되어 있다고 강조

■ ECB 주요 인사들,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수 주 내 개선되지 않을 시 ECB가 6월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도 ECB가 금리경로를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6월 금리인상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표명

■ 미 재무부, 2분기 예상 차입 규모 \$1,890. 6일 예정된 국채 발행 계획에 주목

- 미 재무부는 2분기 차입 규모를 2월 전망치보다 \$790억 늘어난 \$1,890억으로 예상. 3분기에는 \$6,710억을 차입하고 9월말 현금 잔고를 \$9,500억으로 유지할 계획

■ 푸틴 대통령, 5.8~9일 러-우 휴전 선언. 젤렌스키 대통령은 별도의 휴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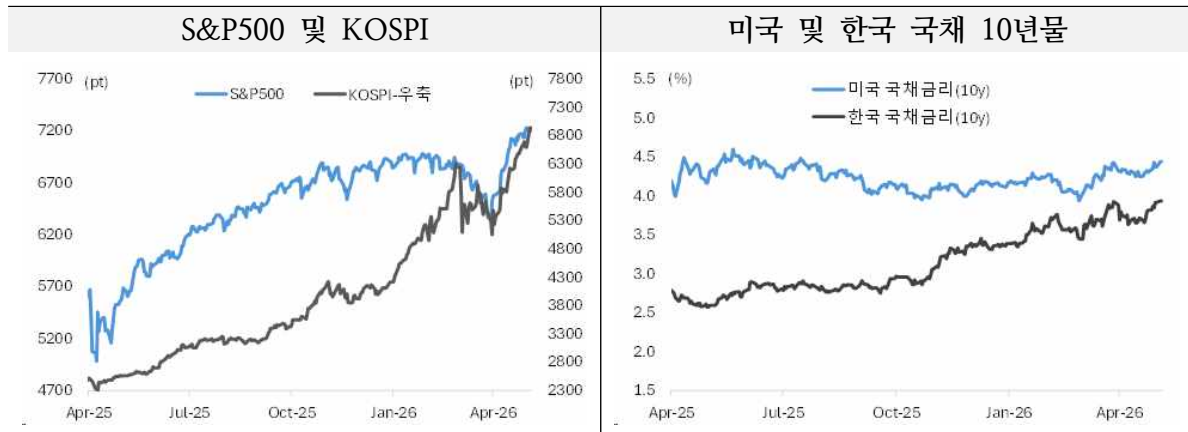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5.8일부터 9일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휴전을 선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시작되는 별도 휴전안으로 맞대응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ISM 서비스업 지수 및 3월 JOLTs 구인건수, 유로존 3월 P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미셸 보우만 이사, 마이클 바 이사 등 연준 인사 발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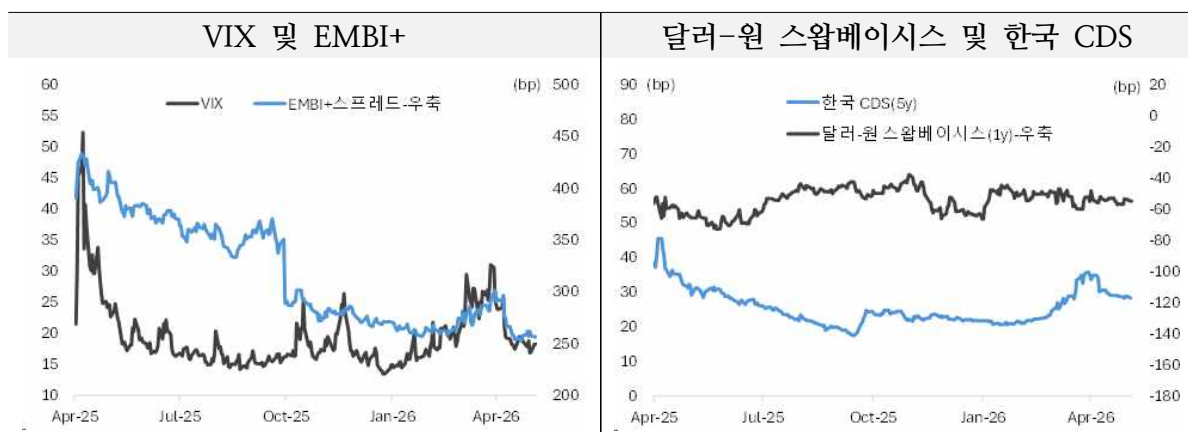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29, E-mail skkim@kcif.or.kr